

챔피언스필드 야외주차장 조성?... “글쎄요”

광주시 교통난 해소 위해 야구장 인근 4곳에 건립 추진 신축비용 맞먹는 철세 필요...주민들 공동화 초래 등 반발 기존 야구장 허물고 공원 조성·지하주차장 건립 목소리도

광주시가 토지보상비만 400억원을 들여 추진중인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주변 야외주차장이 야구장 주변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야구장 주변인 광주시 북구 임동 주민들은 비좁은 도로 확장, 대중 교통 확충 등과 같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택가 주차장 건립은 지금도 열악한 임동지역 공동화를 부추기고 되레 차량 유입을 증가시켜 교통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날 중순께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야외주차장 조성사업 TF팀을 구성해 1차적으로 북구 임동 576번지 일원 7150㎡ 부지에 350~400면 규모의 제1 야외주차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시는 제1 주차장에 토지보상비 81억원 등 모두 146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올해 내에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말

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시의 야구장 주변 야외주차장 건립 계획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조성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지난 2012년 3월 야구장 주변 4곳 2만9166㎡를 야외주차장 용도의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주민들의 반대와 재원확보로 어려움을 겪다가 챔피언스필드 개장 초기부터 불거진 교통난 해소를 위한 임시방편으로 지난해부터 야외주차장 조성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시가 임동 576번지 일원을 1차 사업지로 선택한 이유도 공·폐기가 많고, 보상비가 적게 들어 사업추진이 용이해서다.

시는 제1 주차장 조성을 마무리한 뒤 연차적으로 나머지 3곳의 주차장 건립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제는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과 주민들의 반대다. 4곳의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는

■야구장 주변 야외주차장 예정 부지



토지 보상비만 393억원이 소요된다. 또 규모에 따라 53억~568억원의 건립 비용이 추가로 들어 주차장 조성에만 야구장 건립 예산(993억원)에 가까운 962억원이 들어가게 된다.

일부 주민들은 야외주차장 건립을 중단하고 지하철조기 개통, 비좁은 도로 확장, 대중 교통망 연계, 불법 주차장 단속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아델리움 1단지 박한표 입주자대표회장은 “주차장 건립 계획 자체가 강연대 전 시장이 임기 내에 야구장 신축을 마무리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내놓

은 것”이라며 “주택가에 주차장 구조물이 들어오면 주변지역 공동화 현상이 심화할 게 불 보듯 뻔하다. 기존 무등야구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외주차장 예정부지 토지 소유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시가 주차장 예정 부지를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면서 수년째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광주북구의회 소재섭 의원은 “무등야구장을 허물어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면 예산도 적게 들고, 교통난도 해소될 것”이라며 “시가 일방적으로 주차장 예정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기간도 결정하지 못해 해당 토지 소유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오는 4월 발주하는 무등야구장 기본계획용역 결과와 관련객 추이 등을 검토해 야외주차장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야구가 없는 날에도 주차장이 유지·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도시 공동화 현상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자매들이 8년간 병원입원 투어 25억원 보험사기 일가족 적발

매달 보험료만 700만원 광주광산경찰, 11명 송치

8년에 걸쳐 허위·과다 입원을 일삼으며 무려 25억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세 자매와 그 일가족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광산경찰은 14일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질환임에도 수년에 걸쳐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사기)로 A(여·61)씨의 세 자매와 그 가족 등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산구에 사는 A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여간 광주와 전남·북 병·의원에 허위 입원해 15개 보험사로부터 25억원가량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액의 입원 일당이 보장되는 건강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한 뒤 협심증과 무릎관절 통증 등을 이유로 병·의원 과요양병원 등 29곳을 돌며 상습적으로 입·퇴원을 반복했다. A씨 가족 3명의 한 달 보험료만 300만원에 달했고 나머지 두 자매의 가족까지 합치면 일당 11

명이 매월 700만원을 보험료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통원 치료로 충분하다고 할 경우 ‘고통이 극심하다’고 주장하면서 입원 횟수와 기간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여동생 B(58)씨의 경우 지난 8년간 57차례에 걸쳐 1226일 입원했으며 이 중 1000일 이상을 2~4명의 가족 또는 일가 친척과 함께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매 등 가족들이 무더기로 동일한 기간에 같은 병원에서 입·퇴원한 횟수가 55회에 달할 정도였고 가족끼리 수시로 외출을 나가 쇼핑과 외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이 같은 정황을 눈여겨 본 민간 보험사의 제보로 덮미를 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 25억원에는 병원 입원비, 치료비 등이 포함돼 있어 A씨 일당이 실제 손에 쥔 돈은 수억원 안팎”이라며 “특히 보험사기단에 지급된 보험금은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의 보험 납입료 상승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피해자 신상정보 공개 물의 경찰 총경 돌연 퇴직 신청

사건 브리핑 중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징계 권고를 받은 경찰 간부가 돌연 퇴직을 신청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경찰청 소속 모 부서 과장인 A(60) 총경이 의원면직을 신청했다.

A 총경은 지난해 전남 모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발생한 ‘초등학생 인질극’ 사건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던 중 피해자인 B(9)군 어머니의 신상정보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군 어머니가 같은 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고, 인권위는 지난 1월 A 총경의 징계를 경찰청에 권고했다. 경찰청은 12일 A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을 발령했다. A 총경은 연말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노후 버스정류장 교체

광주 북구청 교통과 직원들이 14일 오전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인근의 노후 버스정류장 시설을 교체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총선 예비후보 소환 조사

광주지검 공안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4·13 총선 예비후보인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A 후보는 선거 출마를 위해 산악회를 결성하고 관광행사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기초의원 등 11명과 산악회를 결성하고 지난해 6~11월 주민 6000여명을 초청, 관광행사를 열고 업적과 공약을 홍보한 혐의다.

주민들은 산악회 측이 빌린 버스에 나눠 타고 전남·북 관광지를 방문했으며 기념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2만원씩 회비 명목으로 냈지만 교통비, 식비, 기념품 등을 포함하면 전체 경비는 회비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후보와 산악회 관계자의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증거물 분석과 소환 조사가 일부 끝나는 대로 A 후보와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도박 탕진 대학생 “강도 당했다” 거짓말에 경찰 출동 소동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대학생이 강도를 당했다고 부모에게 거짓말하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

○...14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50분께 광산구 우산동의 한 원룸에 사는 A(43)씨가 “홍기를 든 강도가 집에 침입해 아들(19)을 위협한 뒤 내 자갑에 든 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고 신고했다는 것.

○...경찰은 그러나 원룸 주변에 설치된 CCTV에 용의자의 모습이 찍히지 않은 점, 강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토대로 강도사건 발생 여부를 추궁하자 A씨 아들은 “스포츠 토트를 하려고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훔쳤는데 봉망 잃어버렸다”며 “혼날까 두려워서 거짓말한 게 너무 커져버렸다”고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대 이은 어촌계장 비리 전임 비리 해결한다더니 보상금 횡령 구속

전임자가 저지른 비리를 해결하겠다고 어촌계장직에 자願한 어촌계장이 어민들의 보상금을 횡령,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2과는 14일 어민들에게 지급된 어업피해 보상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어촌계장 김모(58)씨를 구속했다.

지난 201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어촌계장을 맡아온 김씨는 2012년 전남도가 발주한 신안군 하의도와 신의도를 잇는 연도교 개설 공사와 관련해 어업피해보상금으로 지급된 마을 공동발전기금 7억5000만원 중 2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빼돌린 보상금을 자신의 주택 신축 공사비와 자녀의 매장 임대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전임 어촌계장 장모(52)씨가 지난 2012년 어업권 소멸·피해 손실보상금 14억5000만원을 받아 이 중 공동발전기금에서 4억8000만원을 빼돌린 뒤 2013년 10

월께 해외로 달아나자 ‘뒷수습을 하겠다’며 어촌계장직에 자願했다. 장씨는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 2월 전남지방경찰청에 구속(광주일보 2월25일자 6면)됐다.

김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내 돈으로 착각해 사용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 명의의 어촌계 공공용 예금 통장을 개설해 2억원을 입금하고, 어촌계 총무에게 5000만원을 입금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구례, 지리산 온천지구내 알프스모텔 매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음식점 / 숙박시설, 2~4층 - 숙박시설
- 경매로 취득,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요양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매매 - 10억 3천만원
- 용자 - 6억 3천만원 포함
- 법인체 인수가능 (이전비 없음)

투자 가치! 좋습니다

리모델링후 연 3억원 이상 순수익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